

—資 料—

영양의 榮養乎 · 營養乎에 관한 研究

李 盛 雨

嶺南大學校 家政大學 食品營養學科

緒 論

영양學的 영字를 現今 日本에서는 榮字를 使用하고, 中國에서는 營字를 使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에 따라 榮·營字가 混用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對한 具體的인 考證마저 전혀 없는 實情이기에 筆者는 이를 한번 바로 잡아 보고자 이에 對한 檢討를 試略하여 본 結果 榮字를 使用하는 것이 보다 좋겠다는 意見을 얻었기로서 여기에 이 問題를 提起하여 보고자 한다.

本 論

1. 榮養과 營養使用的 變遷과 現狀

日本·中國·韓國에서 榮養과 營養이 使用되어 온 變遷과 現狀을 대충 整理하여 보면 表 1과 같다.

19世紀 末頃에서 20世紀 初에 걸쳐 西歐에서 日本으로 導入된 새로운 學問인 營養學的의 영字는 當時 榮과 營이 混用되고 있었다. 1928年 佐伯(當時의 國立 營養 研究所長)¹⁾는 몇 가지 考證에 의거하여 榮字를 使用할 것을 主張하여 그 以後부터 日本에서는 公文과 教科書에 한걸 榮養이라 쓰고 있다.

지금 1928年 以前의 몇 가지 書籍을 살펴보면 日本의 故事熟語辭典 (1913)²⁾에 榮養이란 用語가 나와 있지만 이것은 오늘날의 nutrition과는 概念이 다른 父母를 奉養한다는 뜻으로 解釋되어 있고 營養이란 用語는 아예 나와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朝鮮語辭典 (1920)³⁾에도 마찬가지로 營養이란 用語가 없다. 그러나 朝鮮百科大全(1915)⁴⁾에는 nutrition을 分明히 營養이라고 表示하고 있다. 한편 nutrition을 澤村 (1926)⁵⁾

表 1. 榮養·營養 使用的 變遷과 現狀

國名	年度	出處	榮·營
(日)	1913	故事熟語辭典(池田), 寶文館	榮養(父母奉養의 뜻), 營養은 없음
(韓)	1915	朝鮮百科大全, 京城 新文社	榮養
(韓)	1920	朝鮮語辭典, 朝鮮總督府	榮養(父母奉養의 뜻) 榮養은 없음의
(日)	1923	古今 禁酒大觀(金譯), 文化書房	營養
(日)	1926	食物學 講話(澤村), 隆文館	榮養
(日)	1926	動物界의 智囊(松山), 中興館	榮養
(日)	1928	禁酒叢話(長尾), 日本評論社	營養
(日)	1928	佐伯 提案으로 教科書 公文에 榮養을 採擇키로 決定	
(日)	1929	日本食糧 回送史 日本食糧回送會社	營養
(日)	1930	食 朝日新聞社	榮養
(日)	1930	牛乳及乳製品(中江), 養賢堂	榮養
(日)	1932	大百科辭典, 平凡社	榮養
(韓)	1934	博物 慶尙南道 教育會	營養
(日)	1935	營養化學(鈴木等), 岩波書店	榮養
(日)	1937	營養と 食品의 化學(有本等), 丸善	榮養
(日)	1937	最新 中學化學(柴田), 東京 開成館	榮養
(日)	1933	食物講座 雄山閣	榮養
(韓)	1933	初等理科, 朝鮮總督府	榮養
(日)	1939	新 日本 家事教科書(山崎 盛林堂)	榮養
(韓)	1939	우리말 사전(文世榮), 博文書館	榮養(父母奉養의 뜻), 營養
(中)	1939	辭源 上海商務印書館	榮養(父母奉養의 뜻), 營養
(日)	1942	營養化學(鈴木), 朝倉書店	榮養
(日)	1942	營養學(井上), 朝日新聞社	榮養
(日)	1943	朝鮮産 生食用植物, 朝鮮總督府	營養
(日)	..	朝鮮의 枚荒 植物(林), 京城 東都書籍	營養
(韓)	1948	朝鮮 常用 食品 營養價分析表 蔡, 國立 化學研究所	榮養
(日)	1951	日本에서 當用漢字制定榮養	營·榮
(韓)	1959	營養學概論(蔡禮錫), 東明社	榮
(韓)	1960	營養食品化學(李盛再), 修學社	營養
(韓)	1963	營養士에 관한 規則, 保健社 會部	營養
(中)	1971	國民學校生物 國立編譯館	營養
(韓)	1972	營養學概論(蔡禮錫), 東明社	營養
(日)	1972	營養化學(芦田), 養賢堂	榮養

는 食物學講話에서 榮養이라 하였고 金澤(1923)⁹⁾는 古今禁酒大觀에서 營養이라 하는 등 統一되지 못하고 混用되어 있다.

1928年 以後 日本에서 나온 營養學에 關係되는 거의 모든 書籍에는 榮을 使用하고 있으며 解放後 1950年 頃當用漢字의 制定에 따라 榮이 榮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解放前 우리나라에서 發行한 日本語로된 書籍인 慶尙南道教育會(1934)⁷⁾의 博物에는 營을 使用하였고, 朝鮮總督府 林業試驗場(1943)⁸⁾에서 나온 朝鮮野生食用植物과 林泰治(1944)⁹⁾, 朝鮮의 救荒植物と 其의 食用法에도 營을 使用하고 있으며 文世榮(1938)¹⁰⁾의 우리말 사전에도 nutrition을 營養이라고 表示하였다. 한편 朝鮮總督府(1938)¹¹⁾에서 發行한 教科書인 初等理科에는 日本과 한가지로 榮을 쓰고 있다.

다음은 解放後를 보면 國立化學研究所(1943)¹²⁾에서 發行된 朝鮮 常用食品 營養價分析表에 榮을 使用하였고 蔡禮錫(1959)¹³⁾은 營養學概論 初版에서 榮을 使用하였다. 筆者(1960)¹⁴⁾ 營養食品化學에서 修學社側의 主張에 의하여 營字를 擇하였다. 그 後 保健社會部令 第112號(1963) 營養士에 관한 規則에서도 營을 擇하였고 大部分의 教科書가 營字를 쓰고 있으며 蔡禮錫(1972)¹⁵⁾은 그의 營養學概論 改訂版에서는 榮을 營으로 고쳐서 發行하였다. 그러나 現今 新聞·雜誌·私信 등을 有心히 살펴보면 榮養도 많이 쓰이고 있는 實情에 있다.

그리고 中國의 辭源(1939)¹⁶⁾에는 nutrition을 營養이라 하였고 榮養은 우리 나라와 한 가지로 父母 奉養에 뜻으로 解釋하고 있다. 現在 台灣에서 使用되고 있는 中等學校 教科書인 國民中學生物(1971)¹⁷⁾과 初級家事職業學校 教科書인 營養(1970)¹⁸⁾에도 營養을 使用하고 있다.

2. 辭典에 나타나는 營養의 解說

日本에서 發行된 몇 가지 辭典의 解說을 보면 表 2와 같다.

新字鑑¹⁹⁾과 辭苑²⁰⁾에서는 榮養과 營養을 같은 뜻으로 解說하였고 著名한 辭典인 大言海²¹⁾에서는 營養은 分明히 잘 못이라 못박고 있으며, 가장 權威있는 諸橋의 大漢和辭典²²⁾에서는 營養의 뜻은 nutrition 이지 단字는 榮養이 옳다고 하였다.

다음은 우리나라 辭典의 解說을 보면 表 3과 같다.

表 2. 日本辭典의 營養 解說

鹽谷의 新字鑑(1942)	榮養·① 입는 것 먹는 것을 총칭하여 기른다. ② (生) nutrition의 뜻
榮養·(生) nutritior의 뜻. 榮養과 같은 말이다. 新村의 辭典(1943)	
영양(榮養·營養) (生) nutritior의 뜻 大苑楓 大言海(1944)	榮養-蘭語 voeding, 英語 feeling의 譯語이다. 이 말을 營養이라고 적는 것은 잘 못이다.
諸橋의 大漢和辭典(1968)	榮養-新字鑑과 같은 뜻이다. 營養-(生)nutrition의 뜻 但字는 榮養이 옳다.

表 3. 우리나라 辭典의 營養 解說

朝鮮總督府 朝鮮語辭典 1920	榮養-顯達하여 父母에게 奉養하는 것 營養-없음
文世榮 우리말 사전(1938)	榮養: 현달하여 父母에게 奉양하는 것 營養: nutrition의 뜻
한글 학회 큰 사전(1957)	榮養: 地位와 명망이 높아져서 부모를 榮화롭게 奉양함 營養: nutrition의 뜻
東亞 漢韓大辭典(1963)	榮養: 벼슬 자리가 높아져서 부모를 榮화롭게 모심 營養: (生) nutritior의 뜻. 榮養
張三植 大漢韓辭典(1964)	榮養-한글학회 큰 사전과 同 營養-(生) nutritior의 뜻. 榮養
이희승 국어 대사전(1967)	榮養-한글 학회 큰 사전과 同 營養-nutrition의 뜻

1920年の 朝鮮語辭典³⁾에는 nutrition에 해당하는 用語가 아예 없고 우리말사전¹⁰⁾, 큰 사전²³⁾, 漢韓大辭典²⁴⁾, 大韓韓辭典²⁵⁾, 국어대사전²⁶⁾에는 nutrition을 營養이라 하였고, 다만 漢韓大辭典과 大漢韓辭典에는 榮養이라고 쓸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中國의 辭典의 解說을 보면 表 4와 같다.

表 4. 中國 辭典의 營養 解說

辭原(1939)	榮養 安養其親也 晉書 趙至傳「至年十三 膺師受業 聞父耕叱牛聲投書而泣 師怪問之 至曰 吾小未抱榮養 使老父免勤苦師 甚異 營養 生理學名詞 nutrition의 뜻
----------	--

辭源¹⁶⁾에는 榮養이 우리나라 辭典과 한 가지로 父母 奉養의 뜻으로 쓰이고 nutrition의 뜻은 營養으로만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에는 古典引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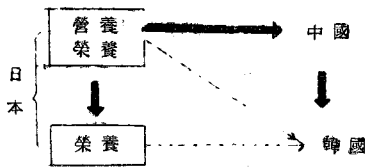
3. 日·中·韓의 營養이란 用語의 交流關係

中國은 東洋文化의 發祥地이지만 西歐文化의 導入은

日本보다 늦었다. 西歐文化의 導入이 늦어진 結果는 淸日 戰爭에서 日本에 敗하는 原因이 되었다. 이에 自覺한 수많은 中國靑年들은 西歐文化 吸改의 지름길로 서 日本으로 留學하였다.

한편 日本은 西歐의 近代 諸文化를 導入하는데 있어 서 그 術語를 漢字로 表示하지 않을 수 없었고 漢字는 多幸히 表意文字이기 때문에 그 結合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用語를 만들 수 있었다. 漢字는 中國에서 韓國을 거쳐 日本으로 건너간 것이다 日本에서 만들어진 無數한 現代 文化의 新熟語가 수 많은 留學生을 통하여 中國으로 逆輸入되었던 것이다. 高名凱等은 現代 漢語 外來詞研究²⁷⁾, 王立達은 現代 漢語中從 日本 借來의 語彙²⁷⁾에 日本에서 逆輸入한 用語로서 經濟, 金融, 手續, 取消, 主觀, 確率, 文明, 現代, 歷史, 信用, 宗教, 等等 수 없이 많은 例를 들고 있으며, 醫學用語는 대개 日本에서 먼저 번역한 것을 中國이 그대로 使用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勿論 中國 自体에서 만든 用語도 있으나 이 가운데는 우연히 日本것과 같아서 살아 남은 것도 있고 日本의 用語에 밀려서 사라진 것이 또한 많다.

영양은 現在 中國에서는 營養으로만 쓰고 있는데 이것은 日本에서 營養學 導入에 初創期에 混用되고 있는 榮養과 營養 가운데서 留學生들은 營養을 擇하여 中國으로 가져가서 이것을 固定시킨 탓이라고 생각된다. 日本은 上記한 바와 같이 1928年 頃 榮養으로 固定시킨데 對하여 우리나라는 營養學이란 學問自体는 日本에서 導入하면서 字는 中國 辭典에 依매어 營字를 主로 使用하고 一部는 日本의 榮도 쓰곤하여 混用狀態에 있는 現狀이라고 믿겠다.



4. 榮養과 營養의 考證

(1) 營養에 關한 佐伯의 考證

本山(1958)²⁸⁾는 飲食事典에서 榮養이란 熟語는 日本의 造語이다. 營養은 生命의 維持에 對한 다스림이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營養이라 적었으나 단지一步 前進하여 生命에 繁盛을 준다는 뜻에서 榮養으로 고쳤는데 이것은 佐伯의 創意인 줄 안다고 하였다.

그러나 佐伯(1928)¹⁾ 自身은 表 5와 같은 考證 資料를 提示하고 榮養이 옳다고 主張하였다.

表5. 佐伯의 考證에 利用된 資料

晉書, 趙至傳	「吾小未能榮養 使老父不勉劬苦」
巢氏	「夫 血氣 者所以榮養共身也」 「肝臟血而候筋虛勞血 不能 榮養 於筋」
杉田玄白 書翰(和蘭醫事問答, 下)(1770)	「血榮養一身候職, 云云」
高野長莫	翻譯書인 醫原樞要에도 榮養이 나와있다(1832)의 字源 養字는「食物을 주어서 기른다」는 뜻이고 羊이 最善의 營養源으로서, 羊고기를 주어서 기른다고 하여 羊과 食을 合하여 養이 생겼다.

表 5에서 晉書, 趙至傳의 引用文은 「내가 아직 어려서 榮養할 수 없어서 老父가 勤苦를 免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 때의 榮養은 nutrition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榮(영화 영)과 養(받을 양)을 合하여 地位나 名望이 높아져서 父母를 榮화롭게 만들어 모신다는 뜻의 榮養이고, 新字鑑, 大漢和辭典과 우리나라의 辭典, 中國의 辭典에도 父母 奉養의 뜻으로 解說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李退溪 啓蒙篇에도 「今人每以 榮養藉口」이란 말이 있는데 이 때도 榮養도 父母 奉養의 뜻이다. 따라서 佐伯가든 晉書 趙至傳은 榮養이 옳다는 考證資料로서 適當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佐伯은 巢氏를 引用하고 있는데, 巢氏란 隋의 代表的인 醫書로서 巢元方이 隋煬帝의 命을 받아 편찬한 「諸病源候論」이고 이 冊은 특히 日本의 漢方醫學에 크게 影響을 준 것으로, 여기에 「무릇 血氣라 하는 것은 그 몸을 榮養하는 所以의 것이다」

「肝은 血을 貯藏한다. 그리하여 肉體에 利用된다. 虛弱 貧血은 肉體를 榮養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 때의 榮養은 nutrition에 有關한 것이다. 한편 杉田, (1770) 高野(1832)등 日本 洋醫學의 先驅者들이 nutrition을 榮養이라고 表記 하였었다. 이 事實은 大言海²¹⁾에도 引用되어 있다.

이와같이 漢方醫學에서 nutrition을 榮養이라고 表現한 考證과 아울러 本來 nutrition이란 養分을 섭취하여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한 繁盛을 준다는 보다 積極的인 內容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榮養이란 熟語를 擇할 것을 主張한 것이었다.

(2) 營衛의 考證과 營養

佐伯은 榮養이 옳다고 主張하는 또 하나의 考證資料

로서 漢方醫學의 영衛이란 術語를 唐書와 內經에서 引用하였다¹⁾.

表 6. 佐伯가 引用한 영衛의 出典

唐書
「人有四支五臟 一覺一寢 吐納往來 流爲榮衛章爲氣色」
內經
「榮衛不行 五臟不通」

佐伯은 영衛란 마음에 元氣가 있음을 말하는 것인바 榮衛가 일어나는 것은 그 根源이 營養에 있다는 뜻에서 衛의 榮을 따서 榮養이 옳다고 하였다.

또 趙憲(1949)²⁾은 「通俗 漢醫學 原論」에서 영(營)은 血이고 衛는 氣이니 「영衛는 新陳代謝를 말한다고 解說하고 있으며, 日本의 石原(1958)³⁾은 「漢方」에서 氣衛는 生命力的 energy 源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은 食物로써 섭취한 calorie와 宇宙에 存在하는 energy 을 합하여 生命現象을 일으킨다. 그리고 氣가 形態를 빌어서 靜止하고 있는 狀態가 血(영)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그리고 中國의 中醫學概論(1959)⁴⁾에는 영衛의 運行이 滯滯하여 血脈이 空虛하면 云云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日本·韓國·中國의 漢方醫學에서 다같이 영衛란 말을 쓰고 그 解說이 nutrition에 有關한 것으로 通用되는 것 같다. 여기서 다시 各種 辭典에 나타나는 영衛의 解說을 整理하여 보면 表 7과 같다.

表 7. 各種辭典에 나타나는 영衛의 解說

張三植의 大漢韓辭典
榮衛-① 마음에 가지는 生氣 ② 榮血과 衛氣
營衛-없음
東亞의 漢韓大辭典
榮衛-다음에 가지는 生氣
營衛-없음
朝鮮總督府의 朝鮮語辭典
榮衛-身體를 營養하는 氣
營衛-없음
小柳의 新彥 漢和辭典
榮衛-血氣, 榮은血, 衛는氣 「唐書」에서 引用
營衛-① 兵營·保壘를 지키는 사람 ② 身體의 血氣
池田의 故事熟語大辭典
榮衛-없음
營衛-營壘를 지키는 者 出典]史記 樊噲傳에 營衛止噲
中國의 辭原
榮衛-血氣也 血爲榮 氣爲衛(內經)榮衛不行 五臟不通
營衛-醫學名詞 言氣血之作用也 以體言曰氣血 以用言則曰營衛
又 以言經脈之內外 營行脈中 營行脈外 一說 動脈爲營 靜脈爲衛
「靈樞經」營衛表則眞氣去

우리나라 辭典에는 佐伯과 한 가지로 영衛를 榮衛로

만 적고 있는데 比하여 日本의 新修 漢和辭典에는 血氣의 뜻의 영衛를 榮衛와 營衛의 둘로 쓰고 있으며 營衛의 다른 뜻으로 兵營 保壘를 지키는 사람이라 說明하고 있으며, 故事熟語大辭典에는 榮衛이란 用語는 없고 營衛를 營壘를 지키는 者로 說明하고 있다. 한편 中國의 辭源에는 血氣의 뜻의 영衛를 內經에서 引用하여 榮衛로 表記하고 靈樞經에서 引用하여 營衛로 表記하고 있다. 또 이밖에 東醫寶鑑²²⁾과 傷寒論²³⁾을 보니 영衛를 榮衛로 表記하고 있다. 이로써 영衛는 或은 榮衛 或은 營衛로 兩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다음은 謝觀(1921)²⁴⁾의 中國醫學大辭典의 說明을 보면 表 8과 같다.

表 8. 中國 醫學大辭典의 榮營과 營衛

榮-古醫書 多與 營字通用
營-古醫書 多與 榮字通用
榮衛-節 營衛

榮과 營이 古醫書에서 서로 通用되고 또 榮衛와 營衛는 같은 말이라 하고 있다.

佐伯의 영衛가 榮衛이니 營養은 榮養이라고 보는 論法을 認定한다면 영衛를 各種 辭典이나 中國 醫學大辭典에서 榮衛 또는 營衛로 表現하고 있으니 營養은 榮養으로 써도 좋고 營養으로 써도 좋다고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5. 養·榮·營의 字意와 字源

새로운 漢字 熟語를 만들자면 漢字가 表意文字이니 만치 術語를 構成하는 字 하나 하나를 銳意 檢討하여 擇一하므로써 그것이 가지는 內容을 適切히 表現시켜야 한다. 營養에 있어서도 우선 養의 뜻과 語源을 밝히고 이에 맞추어 榮과 營을 뜻과 語源에 따라 擇一하여 結付시켜서 nutrition을 表現시켜야 하겠다.

지금 日·韓·中의 各種 辭典에 나타나는 養·榮·營의 字意를 整理하여 보면 表 9와 같다.

表 9. 養·榮·營의 字意

營 ① 기르다(育) ② 자라다(長) ③ 飼育하다
④ 哺乳하다 ⑤ 다스리다(病을) ⑥ 取하다
⑦ 몸울위하다(養生) ⑧ 살찌다(滋養) ⑨ 지키다(守) ⑩ 下人 ⑪ 乳母 ⑫ 아이를 낳다 ⑬ 食物을 貯藏해 두다 ⑭ 奉養하다 ⑮ 마음이 수란하다
⑯ 利益
榮 ① 榮華 ② 오동나무 ③ 추녀 ④ 꽃답다 ⑤ 풀의 꽃
⑥ 꽃이 피는 모양 ⑦ 茂盛하다 ⑧ 盛하다 ⑨ 名譽
⑩ 血
營 ① 軍壘 軍營 官營 ② 居宅 ③ 兵制 ④ 짓다(造)

- ⑤ 나스리다(治) ⑥ 헤아리다 度 ⑦ 오라나라(來)
 ⑧ 황송하다 ⑨ 벌이름 ⑩ 고을 이름 ⑪ 계획하다
 ⑫ 家業을하다 ⑬ 망설이다(惑)

養·營은 제각기 매우 많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制定 當時의 뜻 곧 基本語源에서 後에 여러가지로 派生되어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에 이들의 語源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調査하여 보기로 하겠다. 우선 養의 語源을 살펴보면 表 10과 같다.

表 10. 養의 語源

諸橋의 大漢和辭典

食物을 주어서 기른다(說文) 養, 供養也, 以食羊聲 權의 智林字典

羊字 아래에 食을 밑받침 글자

羊에게 먹이를 주어서 키운다는 데서 「기르다」의 뜻으로 쓰인다.

佐伯

羊은 三牲(牛·羊·豚)가운데서 最善의 營養源이 되니 羊을 먹는 것을 바로 기르는 바탕으로 삼으니 羊과 食을 합하여 養이 되었다.

權⁸⁰⁾은 羊에게 먹이를 주므로서, 佐伯¹⁾은 羊고기를 먹이므로서 기를 수 있다는 것인바 어쨌든 그 語源의 인 面에서 養 一字만으로서 可히 좁은 뜻의 nutrition을 表現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다음은 榮과 營의 語源을 주로 藤堂⁸⁰⁾의 漢字 語源辭典에 따라 살펴보면 表 11과 같다.

表 11. 榮·營의 語源

榮과 營의 原形은 榮의 部分이다. 이것을 後에 榮이라고 적게 되었다. 說文에

「榮은 屋下燈燭의 빛이다. 榮+宀의 會意」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작은 燈의 周圍에 둥근 光環이 생기는 것이라고 解釋된다.

營 說文 桐의 본기다. 木+榮의 省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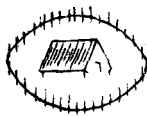
梧桐나무기다. 榮이 나무를 둥글게 덮어서 輪郭을 들어 나게 한다. 轉하여 무성하다 榮화롭다는 뜻으로 쓰인다.

營 說文 市居(둘러싼집). 宮에 따른 榮의 省聲

周圍를 둥글게 營으로 圍하여 둘러싸고 그 속에 사는 것이 營이다 軍中이면 周圍에 車輛이 바리케이드를 둘러싸서 圍하고 그 속에 宿營한다



榮



營

또 榮과 營의 뜻을 生理學的으로 보기 위하여 謝觀⁸⁴⁾의 中國醫學大辭典을 보면 表 12와 같다.

表 12. 中國醫學大辭典의 榮·營의 字意

榮

榮氣之簡稱 謂其能發榮於外也(素問五 運行大論)榮者 水穀之精氣也 和調於五臟 經絡六府 乃能入 於脈也 故循脈上下 貫五臟絡六府也

營

指脈管而言 以其爲人體血液所藏 猶如營舍故名(靈樞經脈篇)脈爲營

一指, 血液所藏處而言

一指, 血液所發現處而言 其義一也

以上과 같이 字源을 考察할 때 榮에 本來의 뜻은 榮華茂盛等이고 營은 軍營·官營·居宅 等인바 이것이 漢醫學에서 榮은 飲食物의 精氣로서 이것이 生理現象을 調和하여 繁盛으로 誘導되고, 營은 居宅의 뜻에서 나와 血液을 貯藏하는 脈管이라는 뜻으로 誘導되고 있다. 비록 古醫書에서 榮과 營이 서로 通用된다고는 하였으나 그 字源의 性格과 生理學的인 뜻에서 보면 이들 사이에는 差異가 明白히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nutrition을 表現하는데 있어서 榮과 營을 此際에 擇一하여 學術用語로서 定立시켜야 하겠다.

6. 營養의 뜻과 榮·營

營養의 養字는 語源으로 볼 때 食物을 먹고 자란다는 뜻이고 이것의 字意는 또 나스리다. 살찌다. 哺乳하다. 아기를 낳는다 等으로 派生되어 있으니 이것만으로 狹意의 nutrition을 가리킬 수 있을 것 같으나 여기에 다시 榮 또는 營字를 結合시켜서 보다 具體的인 nutrition을 表現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果然 어느쪽에 보다 그 正鵠을 取하고 있겠는가?

지금 營과 養을 結合시킨 경우를 생각해 보면, 營은 本來의 뜻으로 볼진댄 軍營 居宅 等이니 이것은 食物을 먹고 자라는 것과 關聯이 적고, 또한 요즘 營을 다스린다. 경영한다는 뜻으로 많이들 使用하고 있는데 이는 벌써 狹意의 nutrition 곧 養속에 食物을 먹고 다스려서 자란다는 뜻이 內包되어있으니 결국 營은 다스리는 것을 한번 더 反復 強調한 것에 不遇한 것이라고 解釋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다시 第4回 國際 營養士會議⁸⁷⁾에서 採擇한 nutrition의 定義를 보면 「營養에 關한 成長, 生活, 活動, 妊娠, 繁殖, 營養所要量, 政府, 立法用語에 nutrition을 쓴다」고 하였으니 現代의이고 學術的 用語로서의 nutrition은 食物을 먹고 一體를 다스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妊娠, 繁殖까지 包含케 되었으니 養에다 繁盛한다는 뜻을 스스로 지닌 榮을 붙이는

것이 本然的인 nutrition의 眞意가 適切히 또한 積極의
으로 表現되는 術語가 成立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父母 奉養의 뜻의 榮養과 混沌되기 쉬운 것
같으나 이것은 nutrition의 營養에 밀려 오늘날 死語
로서 쓰이지 않고 있으니 論外가 될 것이고, 보다 現
代的인 概念, 簡單한 字, 보다 適切한 用語에 育成이
란 點에서 榮을 擇하는 것을 여기 提案하는 바이다.
또한 實際問題로도 1972年 制定한 1800 教育 漢字에서
도 榮은 中學校用, 營은 高等學校用으로 된 글자이니
이런 面에서도 보다 널리 利用될 수 있다는 長點도 아
울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結 論

nutrition이란 新學問은 中國보다 日本에 먼저 導入
되어 이것을 日本에서 그들은 榮養 또는 營養이라 하
였다. 이것이 中國에 營養으로서 逆導入되어 그들에게
이것이 固定되었고 한편 日本은 1928年頃 부터 榮養으
로 擇一·固定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營養이란 學問
自体는 日本에서 導入하고 字는 中國 것을 擇하여 營
養을 現下 많이 쓰고 있으나 一部에서는 榮養도 또한
흔히 쓰고 있는 混亂相을 가지고 있다.

本來 우리나라에는 榮養이란 말이 父母奉養의 뜻으
로 쓰였으나 營養이란 말은 新學問 導入前에는 전혀
쓰여지고 있질 않았다.

營養은 養에나 榮 또는 營을 結合한 것인바 中國古
醫書에서 榮과 營이 서로 通用되어 있고 營養에 有關
한 漢醫用語인 榮衛도 榮衛와 營衛가 같은 뜻이라 하
고 있으니 營養도 榮養과 營養 어느 쪽을 써도 一次的
인 面에서는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나, 새
로운 用語를 制定 하자면 그 用語의 內容을 가장 適切
히 表現하는 字를 銳意 檢討하여 擇一해야만 한다.

營養의 養은 字源과 字意로 미루어 食物을 먹고 나
스려서 자란다는 것이니 이것만으로 狹意의 nutrition
의 뜻이 되는데 여기에 營을 結合시키면 다스림이 더
욱 強調될 뿐 다른 意味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nutrition의 內容은 妊娠 繁殖等에 까지 그 概念의 範
圍가 擴大되고 있으니 食物을 먹고 個體를 다스려서
자랄 뿐 아니라 繁殖해나 간다는 뜻으로 볼때 榮字를
養에 結合시키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妥當하다고 생
각되는 바이다.

끝으로 本研究에 많은 助言을 주신 申泰鎬漢醫師에
삼가 謝意를 表한다.

參考文獻

1. 森川規矩: 榮養日本, Vol. 9, No. 8 (1966)
2. 池田四郎次郎: 故事熟語大辭典, 寶文館(1913)
3. 朝鮮總督府: 朝鮮語辭典(1920)
4. 新文社 編輯局: 朝鮮百科大全(1915)
5. 澤村眞·食物學 講話, 隆文館(1926)
6. 金澤來藏: 古今 禁酒大觀, 文化書房(1923)
7. 慶尙南道教育會: 鄉土研究 博物(1934)
8. 朝鮮 總督府 林業試驗場: 朝鮮產野生食用植物 (1943)
9. 林泰治: 朝鮮의 救荒植物と 其의 食用法, 京城東都書籍(1944)
10. 文世榮: 우리말 사전, 博文書館(1939)
11. 朝鮮總督府: 初等理科(1938)
12. 國立 化學研究所 榮養部: 朝鮮常用 食品 榮養 價分析表(1948)
13. 蔡禮錫: 榮養學概論, 東明社(1959)
14. 李盛雨: 營養 食品化學, 修學社(1960)
15. 蔡禮錫: 改訂版 營養學概論, 東明社(1972)
16. 辭源(合訂本), 上海商務印書館(1939)
17. 國立編譯館主編: 國民中學生物(1971)
18. 林茸祥: 初級家事職業學校 營養, 正中書局 (1970)
19. 鹽谷溫: 新字鑑, 弘道館(1942)
20. 新村出: 辭苑, 博文館(1943)
21. 大槻文彥: 大言海, 富山房(1944)
22. 諸橋轍次: 大 漢和辭典, 大修館書店(1968)
23. 한글학회: 큰 사전, 을유문화사(1957)
24. 東亞出版社辭書部: 漢韓大辭典, 東亞出版社 (1963)
25. 張三植: 大漢韓辭典, 省音社(1964)
26.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관(1967)
27. 陳舞臣. 陳謙臣: 日本語と 中國語詳, 傳社 (1972)
28. 本山荻舟: 飲食事典, 平凡社(1958)
29. 趙憲泳: 通俗漢醫學原論, 乙酉文化社(1949)
30. 石原明: 漢方, 中央公論社(1958)
31. 南京中醫學院: 中醫學概論(1959)
32. 許 俊: 東醫寶鑑, 東洋綜合通信大學(1969)
33. 丸山清康(譯): 傷寒論, 明德出版社(1965)
34. 謝 觀: 中國醫學大辭典, 上海商務印館(1921)
35. 權智庸: 字源圖解 智林字典, 智林出版社(1969)
36. 藤堂明保: 漢字語源辭典, 學燈社(1966)
37. Proceedings 4th international congress of dietetics (1965)